

■ 새벽미사(Missa do Galo)

마샤두 지 아씨스



브라질 작가 마샤두 지 아씨스

난 아주 오래 전에 한 여성과 가졌던 대화를 내 자신도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난 17세였고 그녀는 30세였다. 그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이웃 사람과 새벽미사에 함께 가기로 한 나는 잠을 자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내가 자정에 그 사람을 깨우러 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내가 머물고 있던 집은 관청의 서기관인 메네지스의 덕이었고, 생전에 여러 차례 결혼을 했던 그는 당시에 내 사촌들 중 한 명과 결혼한 상태였다. 두 번째 부인이던 그녀 콩세이성과 그녀의 어머니는 내가 몇 개월 전에 대학입시를 준비하러 망가라치바에서 그곳 리우데자네이루로 갔을 때 나를 무척 환대해 주었다. 세나두가(街)에 위치한 그 이층집에서 난 책과 씨름하면서 이따금 산책을 나갔을 뿐, 외부인과는 거의 접촉을 하지 않은 채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이란 서기관인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두 명의 하녀뿐으로 당시의 일반 가정들과 다를 바 없었다. 밤 10시가 되면 모두들 자기 방으로 가서 10시 반경엔 잠이 들었다. 당시에 난 연극공연을 본 적이 없었는데 마침 메네지스 씨가 자주 구경을 간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두세 번 정도 나도 데려가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럴 때면 그의 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렸으며 하녀들은 킁킁 웃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옷을 입고는 외출한 뒤 이튿날 아침에야 귀가했다. 나중이야 안 사실이지만 그 당시 연극공연이란 완곡한 표현이었을 뿐 사실은 좀 그런 곳이었다고 한다. 당시 메네지스 씨는 남편과 헤어져 어느 여성에게 빠져 일주일에 한 번씩 외박을 하고 돌아왔다. 처음 콩세이성은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참고 견뎠으나 나중엔

아예 포기하고 익숙해졌으며, 급기야는 그 상황이 아주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착한 콩세이성! 사람들은 그녀를 ‘성녀’ (聖女)라 불렀으며, 그녀 역시 그러한 별칭에 어울리듯 남편의 무관심을 아주 쉽게 인내하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극단적인 면이 없었으며 크게 울거나 크게 웃는 경우도 없는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런 면에서 그녀는 신중한 외모에 천부적으로 하렘 풍습을 인정하는 마호메트 여신도로 여겨졌다. 내가 그녀를 잘못 판단한 거라면 신이시여, 용서하시길! 모든 것이 그녀에게서는 완화되고 수동적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까지도 예쁘지도 밍지도 않은 중간 정도였다. 그녀는 진정 귀엽고 온순한 여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녀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용서하였다. 게다가, 누구를 증오할 줄도 몰랐으며, 어쩌면 누구를 사랑할 줄도 몰랐을지 모른다.

크리스마스 날 밤 서기관은 연극구경을 갔다. 아마도 1861년 또는 1862년경이었을 것이다. 그 무렵 난 휴가차 망가라치바로 돌아갔어야 했지만, ‘왕실의 새벽미사’를 보기 위해 크리스마스 날까지 머물렀다. 그녀의 가족은 항상 같은 시간에 각자 자기 방으로 갔다. 난 옷을 입은 채 미사에 갈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정문 쪽에 있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거기서 정문 복도로 지나가면 아무도 깨우지 않은 채 외출할 수 있으리라. 정문 열쇠는 모두 세 개였다. 하나는 서기관이, 또 하나는 내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집에 두었다.

“그런데, 노게이라 씨, 그때까지 뭐 할 거요?” 하고 콩세이성 어머니가 물으셨다. “책을 읽지요, 이나씨아 아주머님.”

난 조르나우두코메르시우 사가 출판한 것으로 여겨지는 낡은 번역서 『삼총사』를 갖고 있었다. 난 거실 가운데에 있는 탁자 곁에 앉았다. 그리고 집안 전체가 잠든 사이, 등잔 불 아래에서 삼총사에 취한 채 달타냥의 여원 말에 올라 모험을 떠났다. 또 이내 뒤마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시간은 무언가를 기다릴 때와는 정반대로 아주 빨리 지나갔다. 시계가 11시를 알리고 있었으나 공교롭게도 난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집 안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책에서 눈을 떼게 되었다. 거실에서 부엌으로 향해 있는 복도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였다. 난 고개를 들었다. 곧이어 거실 문 근처에서 콩세이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았다.

“아직 안 잤어요?” 그녀가 물었다.

“네, 아직 자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인내심도 참 많군요!”

콩세이성은 침실에서 신는 슬리퍼를 끌며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허리 부분을 살짝 맨 흰 잠옷을 입고 있었다. 야윈 그녀는 내가 읽고 있던 모험 소설과는 어울리지 않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난 책을 덮었다. 그녀는 내가 앉아 있던 소파의 팔걸이 쪽 앞 의자에 앉았다. 마치 내가 소리를 내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그녀를 깨웠는가 하고 묻기라도 했듯이 그녀는,

“아뇨! 무슨 말씀을! 그냥 잠이 깬 거예요.” 라고 재빨리 말했다.

난 그녀를 잠시 응시했으며 그녀의 대답이 미심쩍었다. 그녀의 눈은 방금 잠에서 깬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아직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눈을 하고 있었다. 난 그녀가 바로 나때문에 잠을 못 이뤘으며 그로 인해 내가 미안해하거나 또는 나를 염려하지 않게 하려고 거짓말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나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는 나의 조금 전 생각을 재빨리 걷어 내었다. 이미 말했지만 그녀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갈 거예요.” 내가 말했다.

“이웃 사람은 편하게 잠자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기다리느라 뜬눈으로 계시니 정말 인내심이 많으시군요. 게다가 혼자서 기다리고 계시니! 이 밤에 저 세상 귀신들이 무섭지 않아요?”

난 그녀가 거실에 있는 나를 보고 놀랐을 거라고 판단했다.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부인이시더군요.”

“뭘 읽고 계셨어요? 아! 아무 말씀마세요. 알겠어요. 『삼총사』군요.”

“맞아요. 아주 괜찮아요.”

“소설을 좋아하세요?”

“네.”

“『모레닝냐』는 읽어 보셨나요?”

“마세두 씨 작품 말씀이세요? 망가라치바에 있어요.”

“저도 소설을 무척 좋아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거의 읽지 못해요. 지금까지 무슨 소설들을 읽으셨어요?”

난 그녀에게 몇몇 소설의 이름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콩세이성은 머리를 의자 등받이에 기대 채 나의 말을 들었으며, 반쯤 감긴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이따금 혀를 내밀어 입술을 적시기도 했다. 내가 말을 끝냈을 때 그

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있었다. 이어 그녀는 머리를 똑바로 한 뒤 양 팔꿈치를 의자의 팔걸이에 걸치고 양손을 깎지 낀 다음 그 위에 턱을 괴었다.

‘아마 싫증이 났나 보군.’ 난 생각했다.

그래서 곧 큰소리로,

“콩세이성 부인,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군요. 그럼, 이만 저는 ……”

“아, 아뇨. 아직 일러요. 방금 시계를 보았거든요. 지금 11시 30분이예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낮에 괜찮겠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걸요.”

“전, 그렇게 못해요. 밤잠을 못 자면 그 다음 날 낮에 잠을 자지 않고는 못 배겨요. 반시간이라도 잠을 자야 해요. 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 가나 봐요.”

“나이가 들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콩세이성 부인!”

내 말이 너무 컸던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평소에 그녀의 동작은 느리고 조용했으나 그 순간 급하게 일어나 거실 반대편으로 향했으며 거리로 향한 창문과 남편의 서재 방문 사이로 몇 발자국을 옮겼다. 감정이 흐트러진 그녀의 솔직한 모습은 나에게 남다른 인상을 주었다. 야윈 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몸을 가누기가 힘든 사람처럼 보였기에 걸을 때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었는지 난 아직도 모른다. 그녀의 모습이 그날 밤만큼이나 것처럼 유달라 보인 적이 없었다. 이따금 걸음걸이를 멈추고 커튼 자락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식기 수납장에 들어 있는 어떤 물건의 위치를 바로잡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내 앞에 있는 가운데 탁자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잠을 자지 않은 채 이웃집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또 다시 놀랐다. 난 그녀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말했다. 즉, 이전에 궁전에서 의 새벽미사를 본 적이 없었으며, 이번에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시골에서 하는 미사와 똑 같아요. 미사는 어디서나 비슷하죠.”

“그럴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미사는 좀 더 화려하고 사람도 더 많을 게 분명해요. 궁전에서 행해지는 성주일의 축제는 시골에서 하는 축제보다 분명 더 아름답죠. 성 요한 축제나 성 안토니우 축제는 더 말할 것

도 없구요…….”

그녀는 조금씩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리고 양쪽 팔꿈치를 대리석 탁자에 고정시키고는 양 손바닥에 얼굴을 괴었다. 그리자 단추를 잠그지 않은 그녀의 웃옷 소매가 자연스레 흘러내렸다. 그때 난 아주 흰 양팔의 절반을 볼 수 있었으며, 그 팔은 상상했던 것보다 덜 여위어 있었다. 그러한 그녀의 모습은 내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흔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그녀에게서 받은 인상은 무척 큰 것이었다. 양팔의 핏줄이 너무나 푸르렀기에 조명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앉은 자리에서 그녀의 핏줄을 셀 수 있었다. 콩세이성의 출현은 책보다 훨씬 더 나를 잠에서 깨게 했다. 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시골과 도시의 축제에 대한 것과 기타 생각나는 몇 가지 얘기를 이어 갔다. 나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른 채 화제를 바꾸어 가며 얘기를 했고, 때로는 앞에서 이미 말한 화제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가 미소를 지을 때 가지런한 이가 하얗게 빛나는 것을 볼 심산으로 내 자신이 먼저 웃기도 하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아주 검은 색이 아니라 그저 약간 어두운 색이었다. 마르고 긴 매부리코는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 묻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내가 목소리를 약간 높이자 그녀는 내 말을 가로막으며,

“조금 더 작게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깨시겠어요.”

그리고는 이전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자세는 내 마음에 무척 들었으며 우리의 얼굴은 서로서로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사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크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 둘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으며, 내가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었기에 내가 그녀보다 더 소곤대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이마를 찌푸려 가며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결국 피곤을 느낀 그녀는 자세를 바꾸더니 자리를 옮겼다. 탁자를 돌아와서는 긴 소파에 앉아 있던 내 곁에 앉았다. 난 몸을 돌렸고, 그 순간 언뜻 그녀의 슬리퍼 앞부분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단지 그녀가 소파에 앉던 그 순간뿐이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긴 잠옷이 슬리퍼를 덮어 버렸기 때문이다. 난 그 슬리퍼가 검은색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콩세이성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멀리 계세요. 하지만 아주 선잠을 주무신답니다. 지금 깨시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주무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라구요?” 그녀는 내 말이 잘 안 들렸는지 몸을 굽히며 물었다.

난 일어서서 긴 소파 옆에 있던 의자로 자리를 옮기며 방금 한 말을 반복했다. 그녀 역시 선잠을 자므로 결국 이 집에 사는 세 사람이 모두 선잠을 잔다는 사실에 우리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가끔 제가 어머니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 들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침대에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다가 일어나 촛불을 켜고 산책한 다음 다시 누워 보지만 결국 잠을 못 이루죠.”

“오늘이 바로 그 경우였군요.”

“아, 아뇨.” 그녀가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난 그녀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 역시 자신이 방금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허리끈의 양끝을 잡고는 그것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정확히 말해,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왜냐하면 방금 다리를 꼬며 자세를 고쳐 앉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녀는 어떤 꿈 얘기를 하면서 어릴 때 단 한 번의 악몽을 꾸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나도 그랬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우리의 대화는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길게 다시 이어져 갔으며, 난 시간도 미사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얘기나 설명을 끝내면 그녀가 다른 질문이나 다른 화제를 꺼냈으며, 난 다시 그 말을 받아 이어갔다. 이따금 그녀는,

“조금 더 작게 말하세요. 조금 더……” 라고 말하며 내게 주의를 주곤 했다.

얘기 도중에 몇 번의 침묵이 흐르기도 했다. 두 번 이상 그녀가 조는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감은 그녀의 두 눈은 금방 떠졌고 졸음이나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마치 사물을 좀 더 잘 보려고 두 눈을 잠시 감은 것 같았다. 그런 과정에서 그녀는 내가 자신에게 몰입해 있음을 안 것 같았고, 다시 눈을 감은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녀가 빨리 감았는지 아니면 살며시, 천천히 감았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날 밤의 인상은 내게 완벽하게 기억되지 못하거나 뒤죽박죽인 것 같다. 난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거나 자신이 혼란해져 있다. 내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어느 순간인가, 그저 귀엽고 온순하기만 하던 그녀가 정말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일어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나도 일어서려고 했지만 그녀는 동의하지 않은 채 내 한쪽 어깨에 손을 얹고는 자리에 앉아 있게 했다. 내가 무언가 할 말이 있음을 내비쳤으나 그

녀는 추위를 느낀 것처럼 몸을 가늘게 떨면서 등을 돌려 조금 전에 내가 앉아 책을 읽고 있던 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긴 소파의 위쪽에 걸려 있던 거울로 시선을 돌린 뒤 벽에 걸려 있던 두 개의 판화에 대해 얘기했다.

“저 그림들은 오래됐죠. 쉬킹뉴에게 다른 것을 사 오라고 얘기를 해 두었어요.”

쉬킹뉴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 그림들은 그 남자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고 있었다. 두 개의 그림 중 하나는 클레오파트라였고, 다른 하나는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무튼 여자들 그림이었다. 둘 다 통속적인 것이었으나 그 당시 내겐 추해 보이지 않았다.

“멋있군요.” 내가 말했다.

“그야 그렇지요. 하지만 얼룩이 졌어요.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저는 솔직히 두 개의 성녀상(聖女像)을 원했어요. 저 그림들은 총각 방이나 이발소에 더 어울리는 거예요.”

“이발소라고요? 부인은 이발소에 가 보신 적도 없잖아요.”

“하지만 손님들은 자기 차레를 기다리는 동안 아가씨 얘기나 사랑 얘기를 하잖아요. 이발소 주인도 예쁜 그림들로 그런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려 하구요. 가정집에는 그런 그림들이 안 어울려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묘한 것들을 수없이 많이 생각하죠. 어쨌든, 저는 그림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에겐 저의 대모이신 아주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조각상인데 벽에 걸어 둘 수도 없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저의 기도실에 있어요.”

기도실 얘기를 듣자 미사에 갈 생각과 이미 늦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 지금 생각하건대 난 그때 입을 열려고 했다가 이내 다물고 말았다. 그것은 그녀가 하는 얘기를 계속 듣기 위함이었고 그녀가 너무나 아름답고 달콤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내 마음이 다소 느긋해져서 미사와 교회를 잊었던 것이다. 그녀는 소녀시절과 처녀시절에 자신이 푹 빠져 있던 일들을 얘기했으며, 이어서 무도회에서 있었던 일과 산책하다가 생긴 일 그리고 파케타 섬에서 생긴 일 등을 모두 뒤섞어 가면서 거의 쉬지 않고 말했다. 그런 식으로 과거에 대해 얘기하다가 지치면 다시 현재 생활과 집안일을 꺼냈고 자신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가족 간의 피곤한 문제도 얘기했다. 사람들은 그 ‘피곤한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했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나에게 말하지 않았으나 난 그녀

가 27세 때 결혼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처음처럼 자리를 옮기지 않았으며 거의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크지도 길지도 않았다. 어느 순간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벽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잠시 후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거실 벽지를 바꾸어야겠어요” 라고 말했다.

난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자석같이 밀려오는 졸음 또는 내 혀와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던 그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녀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 한편으로 난 그녀와의 대화를 끝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가 계속되길 바라고 있었다. 난 그녀로부터 눈을 떼려고 무던히 애를 썼으며 결국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녀에게서 눈을 떼었다. 하지만 본심이야 그렇지 않았어도 그것이 싫증을 의미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콩세이성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이제 대화는 점점 힘을 잃어 가고 있었다. 거리는 적막 그 자체였다. 얼마 동안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한동안 완전히 침묵한 채 있었다. 유일하게 작은 소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재에서 생쥐가 무언가를 갉아 먹는 소리였으며 그 소리에 난 앞서 말한 자석 같은 졸음에서 깨어났다. 난 그 생쥐에 대해 말하고 싶었으나 방법을 찾지 못했다. 콩세이성은 어떤 공상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바깥쪽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누군가가 “새벽미사요! 새벽미사!” 라고 외쳤다.

“그 친구 분이 왔군요.” 그녀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재미있군요. 바로 당신이 그를 깨우러 가기로 했는데, 그가 당신을 깨우러 왔네요. 어서 가 보세요. 시간이 됐나 봐요. 그럼, 잘 다녀오세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요?” 내가 되물었다.

“그럼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새벽미사”를 여러 번 외치고 있었다. “어서 가 봐요.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제 잘못이에요. 잘 다녀와요. 내일 또 봐요.”

그녀는 똑같은 몸동작으로 소리를 거의 내지 않은 채 안쪽 복도로 사라졌다. 난 밖으로 나가 기다리고 있던 이웃을 만났다. 우리는 교회로 향했다. 미사 동안에 콩세이성의 모습이 신부님과 내 사이에 여러 번 겹쳐 나타났다. 그것은 내 나이 17세에 있었던 추억으로 남으리라. 다음날 점심 식사 동안에 새벽미사와 교회에 왔던 사람들에게 대한 얘기를 했으나 콩세이성의 호기심을

끝지는 못했다. 그날 난 그녀가 언제나 그랬듯이, 전날 밤의 대화를 상기시키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저 자연스럽게 유순한 여자임을 발견했다. 새해 벽두에 난 망가라치바로 돌아갔다. 그 후 3월에 리우데자네이루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남편인 서기관은 뇌출혈로 이미 사망해 있었다. 콩세이성은 앵쟁뉴 노부에서 살았지만 난 그녀를 찾지도 않았고 또 만나지도 못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녀는 남편 밑에서 일하던 공증서기와 재혼했다고 한다.

[박원복 옮김]

미샤두 지 아씨스(1839-1908) - 브라질 사실주의의 거장이자 다산작가이다. 그의 작품들은 사실주의 작품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과 사건의 객관적인 세밀한 묘사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당대의 여타 작가와는 달리 단편적인 이야기를 절묘하게 연결했고, 긴 이야기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독자에게 긴장과 호기심을 연속적으로 자극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간결하고도 고전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당대 부르주아 계급의 허상과 인간 내면의 이중성을 신랄히 꼬집고 있다.

이 글을 번역한 박원복은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이다.
